

지역 메아리

완주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4월 말까지 운영

완주군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오는 4월말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인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2017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서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전자·우편·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미용서비스 진행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불편 가구원에게 컷·염색 등을 해드리는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3개 마을을 방문하여 37명의 어르신들이 봉사혜택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미용실이 없어 편치 않은 모습을 이골고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분들의 미용관리 및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3회(월,수,금) 26개 경로당 및 거동불편세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약 50여명에 대해 컷·염색·매니큐어·안마 등의 이·미용 서비스를 4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암 예방의 날 캠페인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27일 보건소 및 전통시장에서 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및 검진 독려를 위해 '암 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1은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착안한 것으로 '3·2·1'을 상징하는 3월2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 속 암예방 실천의 중요성과 국가암 검진 홍보 및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지원

완주군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열어... 보건·보육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해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서비스 활동을 펼친다.

28일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슈퍼비전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슈퍼비전은 분야별 슈퍼바이저가 모이는 자리로 슈퍼바이저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 보육,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현장경력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됐다.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해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서비스 활동을 펼친다.

형성하는 등 아동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퍼비전에 참여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사례담당자는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그저 현상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양육자 및 사례관리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

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슈퍼비전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사 및 관련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슈퍼비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내 최초 지자체·기업 연계 팜아트 조성

김제시 - BGF리테일, 협약

김제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와 BGF리테일(대표이사 박재규)은 28일 김제시청에서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가졌다.

BGF리테일은 전국 유통망을 갖춘 CU(씨유)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이번 협약에서 양자는 향후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 벼골에서 '국내 최초'로 지자체·기업이 연계하여 팜아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제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와 BGF리테일(대표이사 박재규)은 28일 김제시청에서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김제지평선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관광객 모객 일환으로 김제지평선축제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농·특산품을 사용하여 '지평선도시락(가칭)'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기존 관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여 축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새로운 도약, 함께 한 20년 함께 할 20년'이라는 주제로 기존 축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 '20~30대 흥미와 트렌드를 반영'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문학당 프로그램 운영 '호응'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진행... 특강·독서반 등

완주군이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완주군은 완주 전통문화체험장(고산면 대아저수로 416)에서 완주 인문학당 프로그램을 지난 2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문학당에는 화산중학교 1~3학년 학생 4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종민 전북대학교교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인문학 특강으로 막을 열었다.

뒤를 이어 선현독서반, 선비문화체험, 생태놀이, 춤도리·두레 등 평소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한 인문학 강의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선현독서반에서는 명심보감, 청구, 사자소학, 효경 등 조상들의 초학서를 배우며 선비문화체험

에서는 서예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마음 수양의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2018년도 인문학당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 바람직한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인문학교육 문화도시 완주건설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문학당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참여가 어려운 학교를 위해 평일 수, 목요일에는 강사진이 직접학교를 방문하는 인문학당을 운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완주군청 관광체육과(290-2596) 또는 완주교육지원청(270-763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정성주 예비후보 "장애인 생활 복지정책 구상"

정성주 김제시 예비후보(민주당)가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28일 정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김제시 관내에는 약 9,8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선천적 장애 보다 사고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지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등 여러 장애가 있지만 거주자 중 절반이상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다.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공약이다.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인들 역시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관심과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다.

정 예비후보는 "김제시에는 많은 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삶을 유도해주는 취업지원이나 평생교육, 무료 급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김제시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도 똑같은 김제시민인 만큼 어느 한 쪽만 이익을 얻는 공약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꼭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